

물족 / 어류족 / 해룡족

총 3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있으며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등급이 4에서 2까지 상승한다.

1지역: 물족, 어류족 (친화?적)

2지역: 해룡족 (적대적, 약육강식)

시작하는 위치는 1지역.

거의 99% 이상의 공간이 전부 바다이며, 사실상 육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

====[1차 시나리오]====

페어리 인터링크 TRPG 시나리오

[Cuore di mare(쿠오레 디 마레)]

플레이 인원 수 : 3~4

상정 플레이 시간 : 4~7시간

리타이어 난이도 : 2~4등급

태그 : #생존, #바다, #원시, #잠입 (#전투)

(목표: 해룡족이 가져간 바다의 심장 되찾기) (카오스 다이달로스 처치)

(히스이 정보)

(바다심장 정보)

(해룡 정보)

=====

[시나리오 개시 시]

여행자들은 어떠한 경위로든 워프 모집 공고를 눈에 보았을 것입니다.

“아쿠아 월드 수중 탐색”이라는 글귀에 각자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요동쳤을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니까요.

플레이어들은 여행자 모집 글귀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인의 안내를 받기 전까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모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가벼운 인사 정도는 나누지 않을까 싶군요.

[GM이 플레이어들이 서로 자기소개하게 합니다.]

[ex.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간 같은 걸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인사를 나누고 나서, 한 남성이 플레이어 일행을 향해 접근해 오네요.

남색 정장에 약간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그는 여러분들의 수를 소리 내어 세고서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탐색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겪어본적 없을 꿈과 희망을! 저는 멜허브 코퍼레이션의 안내 13팀의 아르티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아르티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후 여행자들에게 해당 월드의 설명과 기타 약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네요.

[월드 설명, 100G를 통한 아쿠아 월드 탐사 장비 세트, 이외의 범용 상점]

준비가 끝났다면 아르티는 여러분들을 워프 장치 앞으로 인도해줄 것입니다.

“준비가 끝난 것 같아보이니, 이제부터 워프 장치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일순간의 정적, 시야를 가득 채우는 빛, 몸이 빨려들어가는 감각. 그것들이 플레이어 일행의 몸을 휩섭니다.

멀어져가는 시야 속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외치는 아르티의 목소리를 끝으로, 일행의 위치는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지금 일행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아까까지 도심의 건물안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푸른색. 네,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아쿠아 월드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

어느 쪽을 바라보던 보이는 것은 오로지 푸른색 바다 뿐.

끝없는 대해는, 햇빛을 반사하며 푸른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일행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렇게 주변을 보던 중, 바다 표면에서 물거품이 일더니 무언가의 형체가 보이네요.

그들은 상체를 물 위로 꺼낸 채, 자신들에게 거리를 두며,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건강 / 지능 중 높은 것으로 주사위굴림}

[대실패]

- 가능! 가능! 절대 가능!

[실패]

- 비린내가 납니다.

[성공]

- 그녀들은 물족 몬스터입니다.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군요.

[대성공]

- 그녀들은 히스이라고 불리우는 물족 몬스터입니다. 여행자들을 보며 조금씩 흠칫거리고 있네요.
- (히스이 정보 +1)

====그들을 어떻게 할까?(선택지)=====

(대화와 같은 해당 존재들과 적대하지 않는 선택)

- 에지르, 액티와 대화를 나눕니다.

히스이들은 그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도와줄 경우 줄 수 있는 보상까지 설명합니다.

그녀들은 현재 히스이들의 힘의 근원인 바다의 심장을 해룡족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바다의 심장은 물의 힘을 조작하는 히스이의 성물.

해룡족은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른 채, 바다의 심장을 강탈해갔습니다. 그 때문에 히스이들은 힘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고, 그 탓에 그녀는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성물을 빼앗긴 지 어언 500년. 히스이들은 바다의 심장을 지금까지 다시 되찾으려 노력해왔지만, 힘으로는 해룡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힘이 약해지고,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잡아먹혀 개체수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었던 탓에 히스이의 현 개체수는 과거에 비하면 극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경계했던 외부인들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것이죠.

- (히스이 정보 +2)
- (바다심장 정보 +3)
- (해룡 정보 +1)

(적대적인 선택지)

- 그것들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그 몬스터들을 살해했습니다.

{해당 시체를 관찰할 경우 - 지능으로 주사위굴림}

[실패]

- 비린내가 나네요. 눈썰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성공]

- 시체에서 힘이 빠져나와 어디론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대성공]

- 시체에서 빠져나온 힘이 저 깊은 심해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 (바다심장 정보 +1)

(도망치는 선택지)

당신은 도망쳤다!

====선택지 후====

물을 뚫고 심해 속에서 그르릉거리는 소리와 엄청난 진동이 느껴집니다.

====물족 몬스터들(히스이)과 협력을 약속했을 경우====

에지르와 액티가 저 물 속에서 들리는 소리와 진동의 원인은 해룡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들은 굉장히 거대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히스이의 무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다고 하네요.

=====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 속에선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스테이터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주사위굴림}

[실패]

- 어마어마한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관찰 시}

[성공]

- 밑에서 어떤 생명체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대성공]

- 밑에서 '강대한' 힘을 가진 생명체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 (해룡 정보 +1)

====히스이와 협력 관계일 경우====

옆에 있는 에지르와 액티가 몸을 떨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 진동에 대해 질문할 경우}

- 그 진동의 주인은 저 심해 속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난폭한 해룡들의 왕입니다.
- 히스이들은 해룡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네요.
- (히스이 정보 +2)
- (해룡 정보 +2)

액티는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름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설명합니다.

총 2가지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첫째. '비교적 안전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

둘째. '비교적 위험하지만,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 방법.'

전자는 해룡족의 본거지에 잠입하여, 다른 해룡족들의 시야를 피해, 몰래 심장을 훔쳐오는 방법입니다. 들키지만 앓는다면 가장 안전하지만, 들킬 경우 후자보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후자는 정면돌파.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심장을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무력만 가지고 있다면, 가장 쉬울 수도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M사에서 초보 여행자들을 위해 배부하는 『차원 여행을 처음 가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100가지 팁!』에 따르면, 상대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모를 때에는 이러한 방법은 별로 추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액티는 에지르와 여행자를 데리고 생존한 히스이들의 은신처로 이동합니다.

 이어지는 시나리오

=====